

대학 평가에 있어 취업률 지표의 한계점*

여인권 | 숙명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평가감사실장

올해 초 한 평론지에 어느 지방 국립대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이 쓴 「오늘날 대학의 풍경」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따라 강의태도가 달라지고 수업의 내용보다 학점에 더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 한국인 교수가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반쪽 영어강의가 이루어지는 강의실, 스펙을 쌓기 위한 토익교재, 온갖 자격증과 국가고시 수험서들로 가득 찬 도서관 열람실, 국가고시에 최고의 강사진을 자랑하는 학원 홍보물로 가득한 벽보 이것이 이 학생의 눈에 비친 대학의 현실이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기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자신이 아닌 자기가 다니는 대학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스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무한 경쟁사회에서 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면 대학교육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대학입시 때와 같이 다시 학원으로 되돌아가고 스스로 취업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취업전쟁에서 살아남고자 한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 또한 사회로부터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학교의 스펙을 높여야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 대학은 그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목표가 있고 이를 이루기 위한 발전방안을 가지고 있다. 각 대학의 특성화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가치가 다르며 그 가치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외부에 들이대는 대학평가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학은 어쩔 수 없이 좋은 등수를 받기 위해 스스로의 색깔을 잃어가며 같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전략

적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이하 ACE사업)과 같은 재정 지원사업의 순위를 결정할 때 각 대학의 교육의 여건과 성과를 평가하는 「교육지표 포물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전 선정평가 방식의 정책 목적형 사업이 대학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교과부는 2008년 3월 재정지원을 포물리펀딩을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정부정책의 우선도에 따라 포물리의 지표정의와 반영비율을 조정해 오고 있다. 2011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에서의 포물리에는 9개의 지표가 있는데 이 중 재학생 충원율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취업률이다. 포물리 지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업률은 다음과 같은 다소 복잡한 산식으로 계산된다.

$$\text{취업률} = 0.8 \times (6\text{월} \cdot 12\text{월 평균취업률} + \text{해외취업률}) + 0.2 \times \text{유지취업률}$$

이 취업률에 포함된 각각의 취업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X_t 를 해당연도 t 월 1일 기준 건강보험 DB 확인 취업자 수라고 하고 Y_t 를 t 월 1일 기준 해외취업자라고 하자. N 을 취업대상자 즉 전년도 8월과 해당년도 2월 졸업자 중 해당년도 6월 1일의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외국인유학생, 수강자를 제외한 자라고 하면 6월 · 12월 평균취업률은 $(X_6 + X_{12}) / (2N)$ 으로, 해외취업률은 Y_6 / N 으로 정의된다. 유지취업률은 6월

1일 기준 건강보험DB 확인 취업자(X_6) 중 9월 1일과 12월 1일에도 건강보험DB에서 모두 확인된 취업자의 비율이며 유지취업률 기준 시점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교육역량강화사업과 ACE사업에서는 대학들을 지역과 규모별로 나누고 해당 그룹의 평균 취업률과 표준편차로 각 취업률을 표준화(Z 값)하여 취업률 점수를 산출한다.

현재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되는 대학과 각 학과의 취업률의 산식은 X_6 / N 이다. 2011년 7월 14일 교과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취업자의 기준을 현재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서 행정DB(건강보험DB, 국세청DB 등)로 검증된 자료 전환하고 일반 근로자, 1인창업자, 프리랜서, 해외취업자 등 실질취업자를 반영한다고 했다. 또한 국세청DB를 활용하기 위해 취업 기준일을 6월 1일에서 12월 31일자로 변경하고 졸업 후 3개월의 취업활동에 대한 조사에서 10개월의 취업활동을 반영한다고 했다.

국가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야 하는 대학의 책무가 있기에 취업률은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얼마나 교육을 잘 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성과지표이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나 취업시장에서의 인력수급에 의해 취업이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학의 노력만으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입학에서의 지역별, 남녀별 차이는 없지만 취업 여건에 있어 지역별, 남녀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취업률이 대학평가의 타당한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대학의 취업현황을 살펴보아야 할 이유이다.

아래의 [표 1]은 2011학년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전국 196개(본교, 분교분리)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현황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취업률은 2011년 6월 1일 당시 취업대상자 중 취업자(건강DB연계취업자+해외취업자) 비율을 의미한다. 대학 소재지에 따라 서울, 경기인천, 지방으로 나누었으며 수도권대

학은 서울과 경기인천 소재 대학을 의미하며 대학이 본교와 분교가 분리된 경우 해당지역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조사대학을 졸업한 29만3천여 명 중 취업 대상제외자를 제외한 취업대상자는 25만7천여 명이었으며 이 중 취업자의 비율은 54.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남자취업률은 58.68%, 여자취업률은 50.01%로 남녀 간의 취업률 격차가 매우 큰 것

항목 지역	졸업자 (취업대상 제외자)			건강보험DB 연계취업자 (해외취업자)			취업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서울	34,108 (5,831)	36,912 (5,348)	71,020 (11,179)	18,210 (8)	15,928 (19)	34,138 (27)	64.43%	50.52%	57.09%
경기인천	23,294 (2,923)	19,788 (2,001)	43,082 (4,924)	11,843 (17)	8,443 (32)	20,286 (49)	58.22%	47.65%	53.29%
수도권	57,402 (8,754)	56,700 (7,349)	114,102 (16,103)	30,053 (25)	24,371 (51)	54,424 (76)	61.83%	49.49%	55.61%
지방	94,713 (10,805)	84,359 (8,892)	179,072 (19,697)	47,575 (133)	37,835 (165)	85,410 (298)	56.86%	50.35%	53.78%
전국	152,115 (19,559)	141,059 (16,241)	293,174 (35,800)	77,628 (158)	62,206 (216)	139,834 (374)	58.68%	50.01%	54.48%

[표 1 _ 2011년 취업률 현황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은 55.61%로 지방대 취업률 53.78%보다 2%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인천 지역 대학의 취업률은 53.29%로 오히려 낮았고 서울소재 대학은 57.09%로 타 지역 대학보다 확실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과 성별을 동시에 고려했을 경우, 서울소재 대학의 남자취업률이 64.43%로 다른 지역의 남자취업률 보다 최소 6% 이상 높았다. 남자의 취업률이 지방대 남자 취업률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인천 지역 대학의 취업률이 낮은 것은 이 지역 여자 졸업생의 취업률이 다른 지역

에 비해 매우 낮아 나타난 현상이며 서울과 지방 여자 졸업생의 취업률은 차이는 0.17%로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계열별로 취업률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경계열이나 공학계열과 같은 응용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반면 어학을 제외한 인문학계열이나 기초 이학계열의 경우 전공 관련 직업이 한정되어 있다. 특히 예체능계열의 취업률은 우려할 정도로 낮았는데 상대적으로 구직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소재 주요 대학¹⁾의 예체능계 취업률을 보면, 취업대상자 3,318명 중 1,096명이 취업을 해 취업률이 33.03%로 서울소재 취업률 57.09%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남자 1,008명 중 41.87%, 여자 2,310 중 29.18%가 취업하여 예체능계 안에서의 남녀 차이도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예체능계열의 비중이 높은 대학일수록 취업률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성별, 지역별, 계열별로 취업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ACE사업에서는 대학을 지역과 대학규모를 나누어 각 지표에 대해 상대평가를 하고 있으나 대학구성에 있어 남녀나 계열의 비율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학알리미 사이트에는 학과별 남녀 취업 현황이 발표되고 있다. 이것은 자료를 새로 수집하지 않고 기존 자료만으로도 성별, 계열별 구성을 고려한 취업률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취업률에 남녀의 차이를 반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취업률 평가지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과 같이 지역과 규모로 대학을 나눈 후 각 그룹에서 남자와 여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계산한 후 다음과 같이 취업률 Z값을 계산한다.

$$\text{취업률의 Z값} = A \text{ 남자취업률의 Z값} + (1-A) \text{ 여자취업률의 Z값}$$

여기서 A는 취업대상자 중 남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면 2011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적용된 취업률의 Z값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수 있다.

$$\text{취업률의 Z값} = 0.4 \times (\text{6월 취업률의 Z값} + \text{12월 취업률의 Z값}) + 0.2 \times \text{유지취업률의 Z값}$$

취업률은 대학평가뿐만 아니라 대학입학에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다. 대학알리미를 통해 대학뿐만 아니라 학과나 전공의 정보가 세밀하게 제공되면서 대입 지원자들이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 취업률이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때로는 정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라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취업은 입학생의 역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결국 취업과 입학은 순환하며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고착시킬 수 있다. 교과부에서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잘 뽑는 대학이 아니라 잘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라고 하고, 잘 가르치는 대학의 주요 기준으로 취업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률은 오히려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교육시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시킨 대학과 비슷한 취업률을 보였다면 더 높은 평가점수를 주어야 한다. 출발점이 다른 학교들이 달려온 거리를 무시하고 결승점을 통과한 시간으로 단순히 비교한다면 그 기록은 공정하지 않다.

지금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취업률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학 구조조정 대학선정에서도 취업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평가에 있어 취업률이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문제는 적용하는데, 있어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이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모두 고려한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스포츠에서 성별과 체급을 나누어 경기하듯이 취업률도 최소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공정한 척도가 되어야 한다.

필자소개

여인권 | 숙명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평가감사실장

여인권은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에서 경제학사를 취득했고,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대학원에서 통계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로 평가감사실장을 맡고 있으며 통계청 자체평

가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이론통계』(공저) 등이 있으며 10여 편의 SCI급 논문을 포함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시계열자료 분석과 평가지표 개발 등이다.